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6년 7월17일, RIA News, TASS, Interfax, Russia, Rossiyskaya Gazeta, Izvestiya, E-today, CNBNews, Jiji Press

제 2회 동방경제포럼 비즈니스 일정 공개

포럼 비즈니스 일정의 첫번째 테마블록은 «투자자들을 위한 가능성»으로 극동 투자 잠재력과 사업조건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극동 경제발전의 신규 정책의 중간 결과 보고와 전망은 «투자자들을 위한 혜택» 테마블록에서 논의된다. 세번째 토론 주제는 «극동의 발전이 아태지역에 가져오는 이익과 새로운 가능성»이다. 러시아 극동의 경쟁력, 외국 투자 러시아 유치, 에너지 및 교통 분야 국제 협력과 관련된 사안을 다룬다.

또한 포럼의 일환으로 비즈니스 원탁회의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러시아-중국», «러시아-한국», «러시아-아세안», «러시아-일본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 필드 행사로 러시아 극동지역 및 중국 북동지역 주지사들 포럼, “동방벡터” 국민위원회 회의, 러시아-아세안 대학 정상회담, APEC 교육 컨퍼런스, 러중 금융위원회 회의가 계획되어 있다.

2016동방경제포럼 비즈니스 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참고: <https://forumvostok.ru/delovaya-programma/>

2016년 7월 12일, RIA News

동방경제포럼에서 RusHydro와 Mitsui가 러일 에너지 다리 경제모델 발표

해당 정보는 러연방 에너지부 아나톨리 야놉스키 차관과 Japan Association for Trade with Russia & NIS(ROTOBO)의 방문단 대표 무라야마 시게루와의 면담 결과 발표되었다. 일본측은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http://ria.ru/economy/20160712/1464661490.html>

2016년 7월 12일, RIA PrimaMedia

증권거래소와 경매를 통한 첫 어류수출 계약 동방경제포럼서 체결

극동어류경매장이 중국 등강 중젠 그룹과 사전 중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연해주 부주지사, 랴오닝 성 부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계약이 체결되었다. 최종 협약은 동방경제포럼에서 체결될 계획이다.

러시아 생선과 수산물 가공제품의 증권거래소와 경매를 통한 매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조직적 공매 연방법을 개정하여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의하면 외국 법인들도 증권거래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http://primamedia.ru/news/economics/12.07.2016/517967/pervoe-soglashenie-po-eksportu-ribi-cherez-birzhu-i-auksioni-podpishut-na-vef-vo-vla.html>

2016년 7월 12일, minvostokrazvitia.ru

동방경제포럼서 러일 원탁회의 진행

동방경제포럼에서의 러일 원탁회의 준비가 러연방 극동개발부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과 Japan Association for Trade with Russia & NIS (ROTOBO)의 이사회 의장이자 가와사키중공업 회장 무라야마 시게루의 면담에서 논의되었다.

시게루 무라야마 회장은 원탁회의 진행의 일본측 협력기관은 «비즈니스 러시아» 시민단체임을 밝혔다.

ROTOBO 관계자들은 일본 사업가들이 동방경제포럼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밝혔다.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444

극동 국가정책

2016년 7월 15일, minvostokrazvitia.ru

사할린 주, 코르사코프 자유항 조성 준비

러연방 극동개발부 세르게이 카차예프 차관이 주관한 주정부 회의에서 코르사코프에 자유항 조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최근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선도 사회경제 개발 구역법 개정안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에 서명하였다. 극동 4개의 주요 항구가 자유항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코르사콥스키 시구도 포함된다.

사할린 주정부는 빠른 시일내로 자유항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세금혜택의 입법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득세와 재산세는 지역 차원에서, 토지세는 도시 차원에서 관리된다.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455

2016년 7월 14일, minvostokrazvitia.ru

극동 접경지역 발전계획 확정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극동연방관구 소속 러연방 행정단위 접경지 발전 컨셉 구현 조치 계획을 승인하였다. 계획서는 러연방 극동개발부가 관련 연방 및 지방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작성하였다.

55개의 조치와 프로젝트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 인프라, 특정 경제분야, 투자 잠재력, 국제 협력의 발전을 목표로한다.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448

2016년 7월 14일, Rossiyskaya Gazeta, RIA News, PRIME, TASS, Business FM

모스크바서 극동개발의 새로운 정책 브리핑

브리핑 참가자들은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세금혜택,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인프라 지원과 같은 극동개발의 신규 정책들의 중간결과를 보고하였다.

첫 1년안에 12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조성되었고 유대인 자치구에 13번째 선도개발구역 조성이 승인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체제가 형성되었으며 지난주에 발효된 법안에 의하여 5개의 지역 주요 항구들이 자유항 자격을 부여받았다. 극동개발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모든 정책들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투자 프로젝트들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https://rg.ru/2016/07/14/reg-dfo/ozvucheny-kliuchevye-temy-vostochnogo-ekonomicheskogo-foruma-2016.html>

2016년 7월 13일, EastRussia

자유항 1주년

7월 13일에 있었던 타스통신 기자회견에서 러연방 극동개발부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은 연해주 자유항 활동 중간 보고를 하였다. 자유항 법안은 2015년 10월에 발효되었다.

«현재 투자총액이 1640억 루블 이상인 96개의 공식 투자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라고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이 밝혔다. 장관에 의하면 75명의 투자자들은 이미 입주기업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이 중 46명의 투자자들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거의 모든 신청인들은 러시아 사업가들이다. 한편으로 5개 신청은 외국 사업가들로 4개는 중국 투자자, 하나는 일본 투자자의 신청이다. 일본 프로젝트는 석탄수출항 건설로 투자액은 600억 루블로 평가되어 현재 접수된 전체 액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http://www.eastrussia.ru/material/svobodnomu-portu-god/>

2016년 7월 12일, EastRussia

극동헥타르법 발효 후 연해주 주민 토지신청 700건 접수

현재 토지제공은 시범진행지구인 연해주 한카이군에서만 가능하다. 공무원들은 지정된 기간동안 토지제공과 관련된 모든 애로사항과 절차를 검증하게 된다.

다른 시구에도 토지를 신청하는 국민들이 있지만 연해주 다른 지역의 극동헥타르 제공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진행된다. <http://www.eastrussia.ru/news/dalnevostochnyy-gektar-primortsy-berut-dlya-pchelovodstva-stroitelstva-doma-i-predprinimatelstva-gub/>

극동경제

2016년 7월 15일, RIA Vladnews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 국제교통로 조성은 러시아와 중국에 이로움

러연방 극동개발부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은 러중 미디어투어 참가자들과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 국제교통로의 추진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 간 협력의 전망을 논의하였다.

«중국 발전 및 개혁 국가위원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양국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장관이 밝혔다. 장관에 의하면 중국측이 10억 달러 이상 물류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McKinsey 사가 평가한다. 중국 발전 및 개혁 국가위원회는 해당 평가에 동의하였다.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해주 경제가 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vladnews.ru/2016/07/13/109070/realizaciya-mtk-primore-1-i-primore-2-vygodna-rossii-i-kitayu.html>

2016년 7월 15일, PrimaMedia

Alrosa 블라디보스토크 다이아몬드 매매 플랫폼 8월 22일 영업개시

매매는 9월3일까지 진행되며 결과 보고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있을 예정이다. 다이아몬드 원료 매매는 극동연방대학교 내 스베르방크 사무소에서 진행된다.

동방경제포럼에서도 스베르방크 내 Alrosa 금강석 전시판매회가 계획되어 있다. <http://primamedia.ru/news/economics/15.07.2016/518792/almaznaya-torgovaya-ploschadka-alrosi-vo-vladivostoke-nachnet-rabotu-22-a.html>

2016년 7월 15일, RIA News

야쿠츠크-마가단 도로에 통신시설 건설

콜리마 블라디미르 페춘니 주지사는 제 3회 마가단 국제 투자무역산업 박람회에서 10억 루블 규모의 «콜리마» 도로를 따라 통신시설을 건설하는 계약에 서명하였다.

관련 업무 진행은 «임펄스» 산학연합이 담당하였다. «임펄스»의 프로젝트가 구현되면 사하 공화국 (야쿠티야), 마가단 주의 외지에 고속인터넷, 지역 전화 및 이동통신망이 구축된다. 2016년9~10월 경 완공예정이다. <http://ria.ru/economy/20160715/1466427014.html#ixzz4EkFji06m>

극동개발 신규 정책: 성공사례

2016년7월 14일, www.minvostokrazvitia.ru

콤소몰스크 선도개발구역서 목재가공

극동개발사는 Karbon Co.Ltd와 콤소몰스크 선도개발구역 내 사업추진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바롭스크 주 경제에 투자되는 비용은 1억 6100만 루블이며 6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투자자는 «Amurlitmash» 부지에 고속열분해(무기(00)연소) 방식 목재폐기물 처리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고속열분해는 주변환경에 해가 없는 방식이다.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453

2016년 7월 13일, Kommersant

연해주금광석사 금광에 8억 2200만 루블 투자계획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 중 하나인 연해주금광석사는 연해주 파르티잔스키 군에 위치한 «졸로토이» 필드 개발에 8억2200만 루블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 현재 연해주 지역에서 연간 90kg의 사금이 채취되고 있으며 연해주천연자원사는 아직 탐사가 충분히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전망이 좋은 광물자원의 존재를 주장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연해주는 전략자원 탐사에만 치중되었던 지역으로 연해주금광석사의 계획은 지역의 금광사업분야 입지를 강화해 줄것이다.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저희측 연구에 따르면 연해주는 금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프로젝트 아이디어는 표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과 행정지원은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 할것입니다.»라고 극동개발부는 연해주금광석사 알렉산드르 베레스탄노이 사장의 말을 인용하여 밝혔다. <http://www.kommersant.ru/doc/3036563>